남과 북을 연결할 생태의 다리

CULTURE

2017 / 11 / 07

황영희

남과 북을 연결할 생태의 다리

DMZ프로젝트 발표회 서울역사박물관 10. 25

Recurring Tree image model

순환하는 나무

공중정원 남측 입구에서 금해루성 북으로 접어들면 MDL 경계선에 '순환하는 나무(Recurring Tree)'가 세워진다. 이것은 높이 30m에 폭 7.7m이며 꽃이 대공을 형상화한 탑이다. 순환하는 나무는 자연의 빛이 내부로 투과되어 꽃과 새들과 바람이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카드탑 나무 탑이다.

이 나무 탑에 구조를 이루는 목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근대사의 주요 국가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목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고대와 중세에는 중국과 일본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지정학적 이권을 얻으려 온 역사적 중심지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는 점점하는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핵무기를 위시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 집중되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된 이 DMZ는 또한 가장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 펼쳐진 공간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숲과 동물들로 채워진, 생명이 순환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진화 할수는 없을까?

생명을 제거하는 무기 대신 자연이 제공하는 재료들로 '순환하는 나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세울수는 없을까!

Recurring Tree

Recurring Tree will be built on the boundary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which is near the south entrance of the Floating Garden towards the Gungye Castle, a historical ruin that was built in the 10th century. Being 30 meter high and 7.7 meter wide and representing a flower stalk, the Recurring Tree is a large wooden tower that allows natural light to pass through the interior, where flowers can be seen and birds and winds pass through.The wooden structure of this tower is intended to be built with material voluntarily provided by the major countries of the modern histor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e DMZ area is the center of history in which China and Japan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and Russia and the USA in modern times caused geopolitical conflicts. Even at this moment, there is a growing crisis of war here; as the most powerful weapons of war in the world,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concentrated in this place. The DMZ,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on the planet, is also a place of untouched, pure nature. Can' t we turn this beautiful place into a life-enriching sanctuary of peace where forests and animals thrive? Can we together build the Recurring Tree, a message of hope, with materials provided by nature, instead of weapons that destroy life?

10월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DMZ프로젝트 <대지를 꿈꾸며(Dreaming of Earth)>에 대한 공개 발표회가 열렸다. 2015년부터 최재은의 기획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을 연결하는 20km의 '공중정원'을 짓자는 원대한 희망을 담았다. 이번 발표회는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이 꿈의 실현을 위한 각자의 아이디어와 구상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함께 참여한 시게루 반이 제안한 공중정원은 'DMZ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관계 만들기'를 기본개념으로 한다. 이 초안은 또한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대돼 DMZ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대지를 꿈꾸며>는 지상에서 3~5m의 높이에 약 20km 길이의 공중정원이 남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정자와 탑을 세우고 종자은행과 지식은행을 좌측 10km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한다. 발표회에는 최재은 정재승 조민석 유진상 이불 승효상이 참여해 각자의 디자인을 제안하고, 《인간 없는 세상》의 저자인 앨런 와이즈먼(Alan Weisman)이 DMZ-의 생태사적 의의에 관한 특별강연을 열었다. 발표자들은 또한 북한작가와의 협업을 기원하며 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